

소셜 미디어 불안과 분노 전염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문 태 호¹⁾

송 원 영[†]

이 연구는 소셜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사회갈등에 대한 게시글 및 댓글을 통해 개인에게 전염될 수 있는 정서, 특히 불안과 분노를 측정하는 소셜 미디어 불안과 분노 전염 척도(Social media Anxiety and Anger Contagion Scale: SAACS)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고자 실시하였다. 먼저 소셜 미디어 속 사회갈등을 주제로 문헌 탐색을 실시하여 12가지의 요인(성별, 범죄, 세대, 빈부, 정치, 지역에 대한 불안과 분노)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관련된 선행 연구 및 커뮤니티 게시글과 댓글들을 탐색하여, 문항을 개발하고, 내용타당도에 대한 검증을 거쳐 105개의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20-30대를 대상으로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SAACS를 12개의 요인(성별, 범죄, 세대, 빈부, 정치, 지역에 대한 불안과 분노)과 48개의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SAACS는 SNS 중독 경향성 척도,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 상태 특성 불안 척도(STAI-X)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한국판 정서전염 척도(K-ECS)와의 상관은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의 시사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소셜 미디어, 사회갈등, 정서전염, 불안, 분노, 척도개발

* 이 연구는 2022년 한국임상심리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된 바 있음.

1)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임상심리전공 석사과정생

† 교신저자 : 송원영,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32992)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

E-mail: 1058@paran.com



Copyright ©2022,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타인의 의견 및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일컬어지는 소셜 미디어(최민재, 2009)에서는 오늘날의 시대를 “혐오의 시대”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매일신문, 2022. 8. 7; KBS NEWS, 2022. 4. 23). 개인이 싫어하는 대상 혹은 환경 등에 대하여 불편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흔하게 관찰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껏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대가 “혐오”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은 그 수준이 예전과 달리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심화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싫어하다’, ‘미워하다’, ‘기피하다’ 등 비교적 강한 부정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혐오라는 단어는 과거 시절이나, 식품에게 쓰이던 예전과는 다르게 현재는 사람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이승훈, 2021), 익명성(anonymity)을 가진 온라인의 경우 혐오의 감정이 인신공격, 욕설, 비방 등과 함께 자신들과 다른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집단에게 강렬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게 하는 극단적인 갈등 현상으로 진화되고 있다(나은영, 차유리, 2012; Postmes, Spears & Lea, 1998).

온라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갈등은 온라인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현실에서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형성된 여론이 오프라인으로 표출된 사건인 ‘혜화역 시위’(경향신문, 2018. 6. 9)가 있으며(김감미, 이지은, 김연수, 김희선, 김성진, 2019; 김해원 등, 2018), 정부는 혜화역 시위를 통해 표출된 불안 및 분노(정사강, 이재원, 박동숙, 2021)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16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전국 공중화장실 28만 8000여 곳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점검 결과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곳은 0곳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머니투데이, 2020. 4. 2). 이러한 사실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게시글 및 댓글들을 통해 강렬한 불안 또는 분노를 느끼게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에선 ‘혜화역 시위’를 위기의식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의 반응으로 설명하고 있지만(강희영, 2020; 김해원 등, 2018), 공감이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느끼는 과정에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과 생각이 타인 것이라는 경계와 자각을 가진다는 정의(Coplan, 2011)를 고려해 본다면 ‘우리 목소리 또 무시하면 길가는 한남 무작위로 69명 죽여버린다.’(조선일보, 2018. 8. 4)와 같은 문구가 등장한 ‘혜화역 시위’는 오히려 공감보다는 경계와 자각을 느끼지 못하는 정서전염 현상으로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정서전염(emotional contagion)이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의 표정, 자세, 움직임, 정서 등을 모방하거나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Hatfield, Cacioppo & Rapson, 1993). 특히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전제는 자칫 비슷해 보일 수 있는 공감과 구분시켜주는 중요한 특징이며(Coplan, 2011), 자신의 감정이 타인의 감정과 일치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다른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서 전달자는 의도하고자 하는 반응을 정서 수용자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김미애, 이지연, 2015; 하현주, 권석만, 2019). 이와 같은 특징을 ‘어디에선가’ 얻은 정보를 통해 대규모로 모이게 된 ‘혜화역 시위’(정사강, 이재원, 박동숙, 2021)에 대입한다면, ‘어디에선가’라는 불분명한 주체에 대한 영향을 설명할 수 있으며, 성별갈등의 주체가

‘스프레더블 미디어(spreadable media)’를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세대라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불분명한 주체로써 소셜 미디어가 갈등을 전염시키는 강렬한 매개체가 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장민지, 2016; Stein et al., 2014).

과거의 전통적인 정서전염은 일상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현상으로 같이 생활하는 구성원이 우울 증상을 나타내었을 때, 다른 구성원들도 특별한 사건 없이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것(Joiner, 1994)과 내담자를 치료하는 심리상담사가 내담자가 표현하는 우울이나 분노에 자신도 모르게 휘말리는 현상(Gilroy, Carroll & Murra, 2002) 등이 있지만 이러한 일상생활 속 부정적인 정서전염의 범위가 개인이나 직장 내, 혹은 소집단 등 비교적 작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는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서전염은 과거와 달리 온라인을 통한 교류가 발달함에 따라 부정적인 정서전염 효과에 대하여 더 넓은 사회적 수준에서의 설명과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Hill, Rand, Nowak & Christakis, 2010), 과거 교류에 사용된 미디어가 TV나 인터넷 기사 정도로 한정되었던 반면,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 쉽게 접근이 가능한 소셜 미디어가 다양해지고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현재의 정서전염은 개인 혹은 소집단의 감정을 바꾸는 역할을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는 정서를 결정하는 심리적 요인으로써 주목을 받게 되었다(Steinert, 2021).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염되는 정서로 결정되는 사회 분위기는 ‘돈쫓내다(MBC, 2021. 2. 28)’와 같이 긍정적이고 이타적인 분위기를 유

발할 때도 있지만(김정식, 김완석, 2007), 사람들이 인식하는 사회가 심각한 갈등 사회라는 조사 결과(이승모, 홍진이, 하동현, 2019)는 오늘날의 소셜 미디어가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기보다는 갈등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역할에 보다 더 치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박상운, 2014; 조정열, 2021). 또한 익명성을 통한 약한 유대감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염되는 부정적인 정서에 취약하게 만들며(Fan, Xu & Zhao, 2018), 알고리즘과 공유하기를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부정적인 정서는 빠른 정서전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역할은 추후에도 더 확대될 것으로 추측된다(Brown, Sokal & Friedman, 2013; Kramer, Guillory & Hancock, 2014; Kelly, Iannone & McCarty, 2016).

소셜 미디어를 통한 부정적인 정서전염은 단순히 개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수준을 넘어 부적응적인 상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대리 경험을 유발하는 매개체로써(김차영, 박혜경, 2019; 이홍표, 최윤경, 이재호, 이홍석, 2016)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건임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각인시켜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할 수 있으며(Shin & Hampton, 2021), 우울(Ritter, Benson & Synder, 1990), 자살(Yang & Shim, 2022)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도 부적응적인 영향(차란희, 노안영, 2020)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소셜 미디어 정서전염이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국내의 소셜 미디어 정서전염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지목되는 ‘세월호’ 사고의 경우, 수많은 미디어에서 세월호 사고 현장을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유가족들의 슬픔, 세월호에 대한 대중들의 슬픔 및 분노들

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였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고 현장 또는 유가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미디어를 통한 정서전염으로 인하여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나타내었다는 점이다(박노일, 장석환, 정지연, 2018). 이와 같은 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뉴욕 테러 사건(Cohn, Mehl & Pennebaker, 2004), 파리 테러 사건(Garcia, & Rime, 2019)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온라인 커뮤니티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소셜 미디어 정서전염이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한 것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현대의 정서전염은 소셜 미디어의 등장과 발달에 따라 개인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몰래카메라, 성별, 재난 등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는 부정적인 주제를 통해 뚜렷하고 활발하게 발생되고 있다. 특히 앞서 부작용으로 제시한 세상에 대한 불신, 외상 후 스트레스처럼, 정서전염이 인지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Barsade, Coutifaris & Pillemer, 2018)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염되는 부적응적인 정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은 확실시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셜 미디어 정서전염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디어 분석, 이론적 연구에 따른 결과만 제시하였고 전염된 정서의 수준과 취약성에 대한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전염현상이 충분히 확산된 이후에 실시되는 사후 분석적 방법으로써 예방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 소셜 미디어 정서전염 척도가 개발되었는데(이찬주 등, 2022), 이 척도는 기존 전통적인 정서전염 척

도와 같이 정서를 포괄하는 2요인 구조(긍정 정서, 부정정서)를 지니고 있어 간단명료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이 긍정정서, 부정정서 중 어떠한 정서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은 구체적인 이해나 정서전염과 관련된 다른 변인과의 분석에서 모호함이 있다. 더불어 정서전염을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영역이나 사회문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활용상의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염되는 불안과 분노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의 인지 변화와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도움을 주고, 집단적 차원에서는 각종 사회문제에 대하여 정서전염 관점을 통해 소셜 미디어 노출의 정서적 영향을 분석하여 심리학적 기제를 발견하는 등 다양한 후속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방 법

구성요인

이 연구의 전반적인 개발 과정은 '현대 심리평가의 이해와 활용(박영숙, 2019)'에서 제시한 개발과정을 참고하였다. 먼저 소셜 미디어 불안과 분노 전염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하위 요인을 구성하고자 소셜 미디어 장면에서의 사회갈등에 대한 문헌을 탐색하였다. 이때 소셜 미디어 공중 의제의 특징인 빠른 변화 속도(이원태, 차미영, 양해륜, 2011)를 반영하여 최근에 다뤄지는 주제만을 선정하기 위해 2019년에서 2021년 8월 사이 국내 소셜 미디어 속 사회갈등을 다룬 학술 자료만을 탐색하

였다. 그 결과 총 15편의 학술 논문과 1편의 박사 학위 논문이 나타났으며(표 1), 언급된 주제를 분류한 결과 성별, 범죄, 세대, 빈부, 노사, 정치, 지역, 종교, 성소수자로 총 9개의 주제가 나타났다. 이후 하위요인의 신뢰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술 자료에서 중복되어 다루어진 주제만을 선별하여 성별, 범죄, 세대, 빈부, 정치, 지역 총 6가지 영역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6가지 요인의 경우 이전에는 당연하게 누려졌던 것이 오늘날에는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게 됨으로써 불안을 느끼는 ‘생존’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홍중, 2015; 오혜민, 2019; 이승훈, 2021). 이 연구는 이러한 공통점을 반영하여, 생존의 가장 핵심 정서인 불안(오강섭, 2017)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된 불안을 통해 생성된 분노(김도훈, 이승현, 이창한, 2019)를 모두 반영하여 다른 정서를 제외한 불안과 분노에 초점을 맞춰 12가지 요인

(성별, 범죄, 세대, 빈부, 정치, 지역에 대한 불안과 분노)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불안과 분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불안: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특정 집단 혹은 개인으로부터 자신이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및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
- 분노: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특정 집단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없거나 적은 피해임에도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하여 과도한 분노를 보이는 상태

문항개발

문항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였다. 소셜 미디어 정서전염 척도의 경우 기존에 현실에서의 정서전염을 측정하는 한국판 정서전염 척도(김미애, 이지연, 2015)와 소셜 미디어 정서전염 척도(이찬주 등, 2022)가

표 1. 소셜 미디어 관련 사회갈등을 주제로 한 연구

주제	저자
성별	김경희, 조연하, 배진아(2020), 이종임, 홍주현, 설진아(2019), 정사강, 홍지아(2019), 조정열(2021)
범죄	김도훈, 이승현, 이창한(2019), 이영욱, 김평식(2019), 이지원, 김규정(2019)
세대	김경희, 조연하, 배진아(2020), 김미리, 이선희, 정순둘(2020), 신경아, 최윤형(2020), 정순둘, 이수영, 박민선, 신보람, 김지연(2021), 조정열(2021)
빈부	김용희, 한창근(2019), 조정열(2021)
노사	조정열(2021)
정치	김은진(2019), 김지주, 권상희(2020), 이하나(2020), 임연희(2020), 조정열(2021), 천혜정(2019)
지역	김경희, 조연하, 배진아(2020), 조정열(2021)
종교	조정열(2021)
성소수자	김경희, 조연하, 배진아(2020)

존재하지만 한국판 정서전염 척도의 경우 오직 현실에서의 정서전염을 측정한다는 점과 한국판 정서전염과 소셜 미디어 정서전염 척도 모두 구성된 2요인(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이 이 연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염되는 불안과 분노라는 구체적인 정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추상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타 척도를 참고하지 않고 문항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문항 개발을 위해 소셜 미디어 장면에서의 게시물 및 댓글을 대상으로 관찰법을 통해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때 미디어 분석 연구(Prantl & Prantl, 2018; Suksida & Santiworarak, 2017)에서 자주 인용되는 트래픽을 통해 사이트 이용자 수를 나타내 주는 Similarweb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한 국내 사이트 이용자 순위를 참고하여 이용자가 많은 사이트를 선정하여 관찰하였다. 관찰 대상 사이트를 선정함에 있어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구글, 다음 등은 제외하였으며,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티스토리과 같이 팔로우 및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만 노출되는 부분 개방적인 사이트 역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이용자 수 상위 5개 사이트(디시인사이드, 루리웹, 에프엠코리아, 뽀뿌, 네이트 판)를 선정 후 자유게시판과 많은 추천 수를 받은 게시물 및 댓글 탐색하여 각 요인에 대해 10문항 씩 총 120문항을 개발하였다.

이후 임상심리 박사 1명, 임상심리 박사과정 2명, 임상심리 석사과정 4명과 함께 3가지 기준(조작된 정의와 부합된 내용의 문항인가, 문항 내용이 중립적인가, 피검사자가 문항을 이해하기 쉬운가)을 통해 문항이 적절하게 만들어졌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더불어

상담심리를 전공한 교육학 박사 1명, 임상심리학 박사 2명과 성별 및 범죄와 관련된 연구 경험이 있는 임상심리학 박사과정 2명이 내용 타당도 설문을 통해 제시한 수정사항(문항의 내용을 구성하는 단어의 중립성, 용어 정의의 명확성 등), 적합도 평균, 내용적 타당도 비율(CVR) 값을 통해 Lawshe(1975)가 제안한 공식에 따라 양수의 CVR값, 평정된 적합도 3.5 이상에 부합하는 문항과 설문을 통해 수집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예비 문항 105문항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문항 선별을 위한 1차 조사와 타당화 연구를 위한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진행된 모든 표집 과정은 온라인 홍보를 통해 구글 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참가자들에게 설문을 실시 전 연구에 대한 목적과 내용, 비밀보장 원칙을 포함한 연구윤리를 설문 실시 전 안내문을 통해 제시하여 연구 참여 동의 버튼을 누른 자발적 참여자에 한해서만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은 1~4점의 응답방식이었으며, 설문 상단에 소셜 미디어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설문에 대한 보상으로 성실히 응답한 모든 참여자에게 편의점 상품권 1천 원을 지급하였다.

예비조사를 위한 1차 표집은 20대와 30대에 해당하는 성인남녀 226명(20대 남성: 83명, 20대 여성: 74명, 30대 남성: 31명, 30대 여성: 38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문항의 신뢰도 검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예비조사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조사를 위한 2차 표집은 20대와 30대에 해당하는 성인남녀 305명(20대 남성: 77명, 20대 여성: 96명, 30대

표 2. 본조사의 인구통계학적 자료(N=305)

내용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40	45.9
	여	165	54.1
연령	20대	173	56.7
	30대	132	43.3
직업	학생	78	25.6
	교육계열	51	16.7
	프리랜서	39	12.8
	공무직	30	9.8
	의료계열	26	8.5
	자영업	20	6.6
	군인 및 경찰	3	1
	기타	58	19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65	21.3
	대학교 졸업	195	63.9
	대학원 졸업	45	14.8
하루 평균 소셜 미디어 이용시간	1시간 미만	35	11.5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71	23.3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74	24.3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48	15.7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26	8.5
	5시간 이상~6시간 미만	22	7.2
	6시간 이상~7시간 미만	11	3.6
	7시간 이상~8시간 미만	3	1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9	3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	2	0.7
12시간 이상	4	1.3	
소셜 미디어 이용 동기	정보를 얻기 위해	159	52.1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	70	22.9
	대인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59	19.3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	14	4.7
	기타	3	1

남성: 63명, 30대 여성: 69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소셜 미디어의 하루 이용시간 비율은 평균 2시간 이상이 74명(24.3%)으로 제일 많았으며, 제일 적은 빈도를 나타낸 이용시간은 10시간 이상이 2명(0.7%)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하루 평균 소셜 미디어 이용시간은 2.69시간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자료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본조사를 위해 수집된 305명의 자료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유사 척도를 이용한 타당화 작업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한국판 정서전염 척도(Korean version of Emotional Contagion Scale: K-ECS)

정서전염에 대한 취약성을 측정하기 위해 Doherty(1997)가 개발한 검사로, 김미애와 이지연(2015)이 타당화하여 국내에 도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정서전염 측정 결과와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꼬옥 끌어안을 때 나의 마음이 녹는다.”, “치과 대기실에서 겁에 질린 아이의 날카로운 비명을 듣는 것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 긍정적 정서전염 6문항, 부정적 정서전염 4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5점 응답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전염에 취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원척도에서 제시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3이었으며, 긍정적 정서전염은 .85, 부정적 정서전염은 .62로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정서전염 .86, 부정적 정서전염 .52로 나타났다.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AQ-K)

개인이 가진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검사로 국내에는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타당화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분노 측정에 대한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때로 나는 누군가를 치고 싶은 충동을 통제하기 어렵다.”, “나는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때때로 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 신체적 공격행동 9문항, 언어적 공격행동 5문항, 분노감 5문항, 적대감 8문항 등 총 4개의 하위요인과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응답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공격적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된다. 타당화 과정에서 제시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으며, 하위요인에 대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신체적 공격행동 .74, 언어적 공격행동 .73, 분노감 .67, 적대감 .76로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91, 신체적 공격행동 .82, 언어적 공격행동 .70, 분노감 .63, 적대감 .83으로 나타났다.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불안한 상태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와 동료들(1970)이 개발하고 한덕웅과 동료들(1978)이 표준화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불안에 대한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나는 긴장되어 있다.”, “나는 마음이 놓인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된 불안 상태와 불안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각 2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응답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요인에 해당하는 불안 상태 및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연구에서는 불안 상태를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불안 상태 20문항만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표준화 과정에서 보고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이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SNS 중독 경향성 척도

SNS의 중독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정소영과 김중남(2014)이 개발한 척도로 4개의 하위요인(조절 실패 및 일상생활 장애, 몰입 및 내성, 부정 정서의 회피,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과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응답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요인에 해당하는 중독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몰입성을 측정하기 위한 공인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SNS를 하는 동안만큼은 내 자신이 인정을 받는다고 느낀다.”, “SNS에서 타인의 댓글을 보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확인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척도에서 보고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92, 조절 실패 및 일상생활 장애 .84, 몰입 및 내성 .80, 부정 정서의 회피 .81,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77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95,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90, 몰입 및 내성 .85, 부정 정서의 회피 .87,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81로 나타났다.

Rosenberg 자아존중감척도

개인이 가진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로 국내에는 이자영 등(2009a, 2009b)이 수정 및 타당화를 하였다. 이 연구에선 자아존중감과 정서전

염 민감성이 정적상관을 나타낸다는 오프라인 정서전염 연구 결과에 따라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으며,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 10문항과 5점 응답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타당화 과정에서 보고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23과 AMOS 21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소셜 미디어 불안과 분노 전염 척도(SAACS)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 우도법 추정으로 직접 오블리민 회전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이후 소셜 미디어 불안과 분노 전염 척도의 모형을 설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모델 적합도에 대한 확인과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한국판 정서전염 척도(K-ECS),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K-AQ),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I), SNS 중독 경향성 척도,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용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위해 54명을 대상으로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결 과

1차 조사 :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예비조사를 통해 수집된 226명의 자료에 대해 문항분석을 통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문항 간 상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예비문항 105개의 모든 문항에서의 측정값은 최소값 1.00, 최대값 4.00 이었고, 문항별 평균은 최소값 1.40에서 최대값 3.32로 나타났다. 왜도는 모두 절댓값 2이하로 나타났으며, 첨도는 절댓값 3이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사전에 문헌 탐색을 통해 구성요인을 먼저 선정하였기 때문에 탐색적 요인분석 또한 요인 별로 실시하기 위해 각 요인 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최소값, 최대값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자세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본 자료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적

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105문항에 대한 표본의 KMO(Kaiser-Myers-Olkin) 값은 .92, Barlett 구형성 검정 값은 $\chi^2 = 20278.42(df=5460, p < .001)$ 로 나타나 적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하위요인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 별 KMO와 Barlett 구형성 검정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범죄불안 KMO .88, Barlett 구형성 검정 값 $\chi^2 = 1155.64(df=45, p < .001)$, 범죄분노 KMO .78, Barlett 구형성 검정 값 $\chi^2 = 547.24(df=36, p < .001)$, 세대불안 KMO .91, Barlett 구형성 검정 값은 $\chi^2 = 851.84(df=28, p < .001)$, 세대분노 KMO .92, Barlett 구형성 검정 값은 $\chi^2 = 916.08(df=28, p < .001)$, 빈부불안 KMO .91, Barlett 구형성 검정 값은 $\chi^2 = 804.46(df=28, p < .001)$, 빈부분노 KMO .89, Barlett 구형성 검정 값은 $\chi^2 = 771.61(df=28, p < .001)$, 정치불

표 3. 예비조사 요인별 기술통계분석 결과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범죄불안	10	37	18.16	5.58	.55	.15
범죄분노	9	35	23.34	5.28	-.29	-.17
세대불안	8	31	16.82	5.19	.14	-.49
세대분노	8	32	15.53	5.36	.62	.08
빈부불안	8	31	17.37	5.55	.22	-.41
빈부분노	8	29	15.36	4.99	.48	-.36
정치불안	10	40	22.72	7.08	.25	-.45
정치분노	8	32	19.23	5.43	.02	-.59
지역불안	9	32	13.64	4.62	.97	.52
지역분노	10	32	16.27	5.17	.62	-.22
성별불안	8	31	17.45	5.09	.21	-.35
성별분노	9	34	19.59	6.25	.23	-.57

안 KMO .90, Barlett 구형성 검정 값은 $\chi^2 = 908.40(df=45, p < .001)$, 정치분노 KMO .86, Barlett 구형성 검정 값은 $\chi^2 = 598.50(df=28, p < .001)$, 지역불안 KMO .89, Barlett 구형성 검정 값은 $\chi^2 = 1345.38(df=36, p < .001)$, 지역분노 KMO .91, Barlett 구형성 검정 값은 $\chi^2 = 1161.45(df=45, p < .001)$, 성별불안 KMO .84, Barlett 구형성 검정 값은 $\chi^2 = 744.53(df=28, p < .001)$, 성별분노 KMO .91, Barlett 구형성 검정 값은 $\chi^2 = 949.08(df=36, p < .001)$ 으로 모든 하위요인이 적합성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각 요인별 문항들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유의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최대우도법과 직접 오블리민(Oblimin)을 활용하여 각 요인별로 요인을 추출하여 1차적으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지역불안에 해당하는 6번 문항이 105개의 문항으로 보았을 때에는 신뢰도를 저하시키지 않았으나, 지역불안에 해당하는 문항만을 대상으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확인하였을 때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고유치가 1이상으로 나타나는 요인을 추출하여 각 영역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하위요인에서 단일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범죄분노, 정치분노, 성별불안에서 2요인으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요인들의 보다 높은 명료성과 설명력을 위해 공통분 .5이하에 해당하는 문항을 제거 후 내용타당도에서 문항별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문항을 한 번 더 검토 후 중복이 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였다. 이후 선별한 문항을 중심으로 다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범죄불안의 57.43%의 설명력이 66.38%로 증가했으며, 범죄분노의 경우 2차 분석에도 2요인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55.31%에서 66.87%로 증가하였다. 범죄분노의 요인별 문항을 살펴보면 요인 1의 경우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범죄자의 가족한테까지 분노감을 느끼게 되었다.”,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범죄자로 의심받는 사람에게도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다.”와 같이 범죄를 직접적으로 일으킨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또는 아직 가해자로 판결이 나지 않은 용의자에게 까지 분노를 보이는 ‘범죄에 대한 과잉 분노’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요인 2의 경우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예전보다 범죄자에 대한 약한 처벌에 분노감을 느끼게 되었다.”,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범죄자에 대해 더 강한 분노감을 느끼게 되었다.”와 같이 강력한 ‘범죄자를 향한 분노’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세대불안의 경우 기존 57.19%의 설명력에서 65.63%로 증가하였으며, 세대분노의 경우 59.56%에서 65.60%로 증가하였다. 빈부불안의 경우 기존 56.56%의 설명력에서 63.94%로 증가하였으며, 빈부분노는 기존 54.68%에서 63.83%로 증가하였다. 정치불안의 경우 기존 49.48%에서 58.75%로 증가하였으며, 정치분노의 경우 48%에서 56.91%로 증가하였다. 지역불안의 경우 65.06%의 설명력에서 71.16%의 설명력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역분노의 경우 54.32%에서 66.03%로 증가하였다. 성별불안의 경우 기존 2요인에서 문항 정리를 통해 단일요인으로 변경되었으며, 설명력은 64.53%에서 51.10%로 감소되었다. 성별분노는 기존 54.4%의 설명력에서 62.64%의 증가한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위와 같은 변화를 최종적으로 종합해보자면 하위요인들의 설명력은 문항 삭제 이후 성별

표 4. 소셜 미디어 불안과 분노 전염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N=226)

하위요인	문항	요인 1	요인 2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요인 1	요인 2	신뢰도
범죄불안	75	.84		.87	범죄분노	93	.78	-.11	.66
	62	.83				103	.75	.10	
	98	.80				56	.74		
	50	.79				8	-.14	.92	
	87	.78				20	.22	.78	
고유값		3.31		고유값		3.33			
총분산		66.38		총분산		66.87			
세대불안	76	.87		.86	세대분노	33	.83		.86
	88	.84				69	.82		
	27	.79				21	.80		
	39	.78				9	.80		
	63	.75				94	.78		
고유값		3.28		고유값		3.28			
총분산		65.63		총분산		65.60			
빈부불안	89	.83		.85	빈부분노	95	.83		.85
	77	.81				83	.80		
	64	.78				70	.79		
	52	.78				22	.79		
	28	.77				34	.77		
고유값		3.19		고유값		3.19			
총분산		63.94		총분산		63.83			
정치불안	41	.78		.82	정치분노	96	.76		.81
	105	.77				84	.75		
	65	.77				11	.75		
	90	.75				71	.75		
	29	.74				35	.74		
고유값		2.93		고유값		2.84			
총분산		58.75		총분산		56.91			
지역불안	91	.89		.90	지역분노	85	.88		.87
	42	.87				24	.83		
	79	.86				60	.79		
	30	.84				106	.77		
	100	.75				97	.75		
고유값		3.55		고유값		3.30			
총분산		71.16		총분산		66.03			

표 4. 소셜 미디어 불안과 분노 전염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N=226) (계속)

하위요인	문항	요인 1	요인 2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요인 1	요인 2	신뢰도
성별불안	49	.80		.75	성별분노	55	.81		.85
	74	.75				43	.81		
	86	.68				67	.79		
	25	.68				7	.77		
	1	.63				101	.76		
고유값		2.55		고유값		3.13			
총분산		51.10		총분산		62.64			

불안을 제외하고 전부 증가하였고, 성별불안의 경우 13.43%가 감소하였지만 기존 2요인에서 단일요인으로 바뀌므로써 성별과 관련된 불안에 대해 일관된 방향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모든 하위요인에서 기존보다 낮은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나타냈지만, 그 변화량이 적어 의미있는 수치라고 볼 수 없었다. 최종적으로 선별된 60 문항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2차 조사 : 본조사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 2에서는 연구 1을 통해 추출된 요인들을 기반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예비조사 방법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설문 홍보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설문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선별된 60문항 설문지로 진행되었으며, 각 하위 요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각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하위 요인들 간의 관계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확인적 요인분석

소셜 미디어 불안과 분노 전염 척도의 요인 구조와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확인하였다. 먼저 60문항 척도에 대한 각 요인들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살펴본 결과 모두 .80 이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죄불안 .86, 범죄분노 .84, 세대불안 .88, 세대분노 .90, 빈부불안 .86, 빈부분노 .88, 정치불안 .89, 정치분노 .88, 지역불안 .89, 지역분노 .89, 성별불안 .82, 성별분노 .87 이었다. 총합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5로 소셜 미디어 불안과 분노 전염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의 문항이 안정적인 일관성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60문항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표준화계수 및 평균 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s: AVE)을 살펴본 결과 모든 문항에서 0.5이상의 표준화계수가 나타났으며, AVE 값 역시 모든 요인에서 0.5이상의 값과 0.7이상의 C.R값이 나타났다. 이는 집중타당도와 개념신뢰도가 검증됐음을 의미한다(Anderson & Gerbing, 1988; Fornell &

표 5. 소셜 미디어 불안과 분노 전염 척도 본문항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N=305)

	총합	범죄 불안	범죄 분노	세대 불안	세대 분노	빈부 불안	빈부 분노	정치 불안	정치 분노	지역 불안	지역 분노	성별 불안	성별 분노
범죄불안	.78**	1											
범죄분노	.78**	.53**	1										
세대불안	.86**	.63**	.64**	1									
세대분노	.85**	.61**	.60**	.75**	1								
빈부불안	.85**	.63**	.67**	.79**	.69**	1							
빈부분노	.84**	.68**	.63**	.71**	.70**	.83**	1						
정치불안	.83**	.52**	.64**	.71**	.70**	.68**	.61**	1					
정치분노	.79**	.41**	.72**	.66**	.67**	.66**	.62**	.80**	1				
지역불안	.76**	.78**	.43**	.60**	.68**	.56**	.61**	.56**	.44**	1			
지역분노	.77**	.73**	.46**	.58**	.70**	.54**	.60**	.55**	.44**	.88**	1		
성별불안	.83**	.60**	.72**	.72**	.59**	.71**	.68**	.66**	.65**	.50**	.49**	1	
성별분노	.78**	.54**	.72**	.63**	.56**	.64**	.63**	.60**	.64**	.43**	.46**	.87**	1
평균	95.39	8.36	11.46	10.13	9.59	10.64	9.62	10.81	12.01	8.30	7.98	10.66	10.81
표준편차	29.03	3.22	3.57	3.65	3.62	3.70	3.50	4.07	4.10	3.46	3.24	3.42	3.70
왜도	.09	.79	-.22	.23	.52	.14	.38	.08	-.16	.91	1.00	-.09	.09
첨도	-.68	-.04	-.68	-.77	-.36	-.71	-.57	-.97	-.86	.03	.28	-.77	-.72

** $p < .01$

Larcker, 1981). 따라서 이 척도를 구성하는 잠재변인과 측정변인의 관련성은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최대우도추정법을 통한 구조방정

식모델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TLI = .850$, $CFI = .861$, $RMSEA = .060$, $SRMR = .070$ 으로 좋은 적합도 모델 기준에 충족하나 (Bagozzi & Y Yi, 1988; Hu & Bentler, 1999), 이

표 6.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N=305)

	X^2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SRMR$
						$LLCI$	$ULCI$	
모델1 (60문항)	3696.904	1642	.850	.861	.060	.061	.067	.070
모델2 (48문항)	2122.933	1001	.890	.902	.060	.057	.064	.058

후 TLI 지수와 CFI 지수 모두 .90 이상의 수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연구가 제안되고 있어(홍세희, 2000) 모델적합도를 향상하고자 각 요인별 문항들의 요인적재량을 고려하여 총 12문항을 삭제한 48문항 모형을 새롭게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TLI = .889$, $CFI = .901$, $RMSEA = .061$, $SRMR = .058$ 로 전반적으로 향상된 수치를 보였으며, 특히 CFI가 .90이상의 매우 좋은 적합지수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모델 2가 더 간명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모델 2(48문항)를 채택하였다(표 6). 또한 48문항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2요인으로 나누어졌던 '범죄분노'가 단일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정된 48문항 척도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개념신뢰도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60문항 척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분석 항목에서 기준에 부

표 7. 확인적 요인분석과 개념신뢰도, 집중타당도, 내적 합치도($N=305$)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N=54$)

하위요인	문항	B	β	$S.E.$	$C.R.$	AVE	내적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소셜 미디어 불안과 분노 전염 전체 척도 총합							.94	.83***
범죄불안	50	1.00	.67					
	75	1.38	.76	.11	.90	.65	.87	.86***
	87	1.53	.75	.12				
	98	1.52	.82	.12				
범죄분노	20	1.00	.67					
	56	1.09	.82	.08	.80	.64	.77	.82***
	93	.97	.72	.08				
세대불안	103	.96	.74	.08				
	39	1.00	.72					
	63	1.13	.72	.09	.91	.66	.90	.67***
세대분노	76	1.34	.87	.08				
	88	1.28	.85	.08				
	21	.94	.80	.05				
	33	1.01	.80	.06	.91	.65	.89	.76***
빈부불안	69	1.01	.81	.06				
	94	1.00	.81					
	28	.84	.72	.06				
	64	.93	.76	.06	.91	.65	.89	.80***
	77	.99	.80	.07				
	89	1.00	.82					

표 7. 확인적 요인분석과 개념신뢰도, 집중타당도, 내적 합치도($N=305$)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N=54$)
(계속)

하위요인	문항	<i>B</i>	β	<i>S.E.</i>	<i>C.R.</i>	<i>AVE</i>	내적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빈부분노	34	1.00	.83					
	70	1.08	.77	.06				
	83	.93	.78	.05	.91	.65	.86	.76***
	95	.99	.79	.07				
정치불안	41	1.00	.84					
	65	.96	.80	.05				
	90	.85	.76	.05	.91	.66	.86	.81***
	105	1.02	.84	.05				
정치분노	11	1.00	.77					
	35	.96	.75	.06				
	71	.97	.79	.06	.90	.64	.90	.77***
	84	.95	.77	.06				
지역불안	30	1.00	.72					
	42	1.15	.85	.07				
	79	1.17	.84	.08	.91	.66	.93	.78***
	91	1.12	.87	.08				
지역분노	60	1.00	.88					
	85	.84	.80	.04				
	97	.83	.71	.05	.91	.63	.88	.75***
	106	.75	.71	.05				
성별불안	1	1.00	.64					
	49	1.16	.77	.08				
	74	.94	.72	.08	.88	.62	.73	.77***
	86	1.04	.70	.09				
성별분노	7	1.00	.74					
	55	1.07	.80	.06				
	67	.96	.72	.07	.90	.62	.84	.82***
	101	.84	.68	.06				

*** $p < .001$

합되는 적합한 수치가 나타났다(표 7).

3차 조사 : 소셜 미디어 불안과 분노 전염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

소셜 미디어 불안과 분노 전염 척도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20~30대 성인남녀 54명에게 6~8주 간격으로 48문항으로 구성된 소셜 미디어 불안과 분노 전염 척도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상관분석을 통해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산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범죄불안($r = .86, p < .001$), 범죄분노($r = .82, p < .001$), 빈부불안($r = .80, p < .001$), 정치불안($r = .81, p < .001$), 성별분노($r = .82, p < .001$)에서 .80이상의 상관이 보고되었으며, 세대분노($r = .76, p < .001$), 빈부분노($r = .76, p < .001$), 정치분노($r = .77, p < .001$), 지역불안($r = .78, p < .001$), 지역분노($r = .75, p < .001$), 성별불안($r = .77, p < .001$)에서 .70이상의 상관이 나타났다. 세대불안은 ($r = .67, p < .001$) .60이상의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불안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Rosenthal(2001)이 제시한 상관계수 기준에 따라 .70이상의 매우 강한 상관에 해당되며, 세대불안의 경우 .60 이상의 강한 상관에 해당된다. 더불어 소셜 미디어 불안과 분노 전염 척도 총점의 경우 $r = .83, p < .001$ 로 매우 강한 상관으로 나타나 모든 요인 및 전체 총합 점수의 신뢰도가 안정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표 7).

소셜 미디어 불안과 분노 전염 척도의 타당도 검증

소셜 미디어 불안과 분노 전염 척도의 타당

도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판 정서전염 척도(K-ECS), 불안 상태를 측정하는 상태-특성 불안척도(STAI), 공격성 수준을 측정하는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AQ-K), SNS 중독 위험성을 측정하는 SNS중독 경향성 척도.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와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먼저 같은 정서전염 이론(Hatfield, Cacioppo & Rapson, 1993)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판 정서전염 척도와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소셜 미디어 불안과 분노 전염 척도의 대부분의 하위 요인 및 총점수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긍정정서($r = -.20, p < .01$)와 부정정서($r = .15, p < .01$)를 따로 살펴본 결과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낮은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태 불안 검사와 공격성 질문지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태 불안 검사는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 = .25 \sim .34, p < .01$), 불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6개의 요인들의 총합($r = .37, p < .01$)과 분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6개의 요인들의 총합($r = .35, p < .01$) 및 소셜 미디어 불안과 분노 전염 척도의 총합($r = .37,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공격성 질문지 역시 모든 하위요인($r = .25 \sim .48, p < .01$), 불안 총합($r = .48, p < .01$), 분노 총합($r = .44, p < .01$), 전체 총합($r = .47,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추가적으로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하위요인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언어적 공격성과는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였으며, 적대감과는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공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SNS중독 경향성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표 8. 소셜 미디어 불안과 분노 척도의 타당도 분석 결과(N=305)

	정서전염			공격성			SNS중독 경향성						
	합	공정 정서	부정 정서	상태 불안	합	신체 언어	분노감	자존감	합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 장애	부정 정서의 회피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범죄불안	-.09	-.24**	.17**	.31**	.42**	.34**	.18**	.41**	.44**	-.26**	.53**	.46**	.47**
범죄분노	.13*	.03	.24**	.25**	.25**	.19**	.04	.27**	.29**	-.12*	.39**	.37**	.32**
세대불안	-.06	-.17**	.11*	.32**	.43**	.37**	.21**	.36**	.44**	-.26**	.38**	.37**	.32**
세대분노	-.14*	-.24**	.05	.32**	.44**	.41**	.23**	.35**	.42**	-.31**	.36**	.35**	.31**
빈부불안	-.03	-.13*	.13*	.34**	.39**	.32**	.18**	.38**	.39**	-.27**	.39**	.35**	.30**
빈부분노	-.03	-.15**	.17**	.32**	.44**	.37**	.19**	.41**	.43**	-.24**	.39**	.37**	.32**
정치불안	-.06	-.17**	.12*	.29**	.35**	.30**	.13*	.29**	.38**	-.27**	.36**	.32**	.31**
정치분노	.04	.00	.09	.26**	.31**	.25**	.17**	.25**	.32**	-.20**	.31**	.32**	.23**
지역불안	-.14*	-.26**	.08	.28**	.48**	.44**	.25**	.39**	.45**	-.28**	.46**	.43**	.45**
지역분노	-.14*	-.25**	.08	.28**	.46**	.42**	.24**	.39**	.43**	-.29**	.44**	.40**	.44**
성별불안	-.01	-.13*	.16**	.32**	.35**	.27**	.15**	.30**	.40**	-.21**	.45**	.44**	.36**
성별분노	.01	-.08	.16**	.29**	.30**	.20**	.12*	.25**	.39**	-.19**	.40**	.41**	.30**
불안 총합	-.08	-.22**	.15**	.37**	.48**	.40**	.22**	.42**	.50**	-.31**	.51**	.49**	.43**
분노 총합	-.01	-.13*	.16**	.35**	.44**	.37**	.20**	.39**	.46**	-.27**	.46**	.45**	.38**
총합	-.07	-.20**	.15**	.37**	.47**	.39**	.21**	.42**	.49**	-.30**	.49**	.48**	.42**

* $p < 0.05$, ** $p < 0.01$

하위요인($r = .31 \sim .53, p < .01$), 불안 총합($r = .51, p < .01$), 분노 총합($r = .46, p < .01$), 전체 총합($r = .49, p < .01$)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 척도와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하위요인($r = -.12 \sim -.31, p < .01$), 불안 총합($r = -.31, p < .01$), 분노 총합($r = -.27, p < .01$), 전체 총합($r = -.30, p < .01$)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논 의

이 연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염되는 불안과 분노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검사를 개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20개의 예비문항을 개발하고,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내용타당도를 토대로 1차 예비문항을 105문항으로 확정하였다. 다음으로 105문항 설문지를 사용한 1차 예비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60문항을 결정하였다. 60문항을 설문지를 사용하여 2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및 모델 적합도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48문항을 확정 지었다. 선정된 문항은 내적 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준거타당도, 수렴타당도, 공인타당도에서 모두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같은 이론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판 정서전염 척도(K-ECS)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48문항으로 구성된 소셜 미디어 불안과 분노 전염 척도(Social media Anxiety and Anger Contagion Scale; 이하 SAACS)는 12가지의

하위요인 즉, ‘범죄불안’ 4문항, ‘범죄분노’ 4문항, ‘세대불안’ 4문항, ‘세대분노’ 4문항, ‘빈부불안’ 4문항, ‘빈부분노’ 4문항, ‘정치불안’ 4문항, ‘정치분노’ 4문항, ‘지역불안’ 4문항, ‘지역분노’ 4문항, ‘성별불안’ 4문항, ‘성별분노’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2요인 각 4문항으로 구성된 최종 48문항의 모델 적합도는 이전 단계의 60문항 모델 적합도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요인마다 동일하게 4문항, 총 12개의 소척도로 구성되어 향후 비교적 적은 문항으로 소셜 미디어 정서전염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SAACS의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Doherty(1997)가 개발하고 김미애와 이지연(2015)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전염 척도(K-ECS)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상관 분석 결과, SAACS와 K-ECS와의 총점수 상관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 먼저 K-ECS의 타당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원칙도에서는 사랑, 행복, 분노, 두려움, 슬픔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만들었지만, 타당화 과정에서 분노를 제거한 사랑, 행복, 슬픔, 두려움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불안과 분노를 주로 측정하는 SAACS가 분노를 의도적으로 제거한 K-ECS와 유의하지 않은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변별 타당도의 역할을 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최근에 주장되고 있는 디지털 장면에서의 정서전염(social media emotional contagion)과 현실 장면에서의 정서전염(emotional contagion)이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Goldenberg & Gross, 2020)가 지지되는 결과일 수 있다. 디지털

털 정서전염과 현실 정서전염의 가장 큰 차이는 매개(플랫폼)에 의한 정서전염이며, 온라인 의사소통의 특징으로 보고되고 있는 적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익명성, 약한 유대감, 빠른 전파력 등(Lieberman & Schroeder, 2020)은 기존 전통적인 상호작용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 불안과 분노 전염 척도 또한 이와 같은 점이 반영되었을 수 있음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셋째, 수렴 및 공인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태 불안 검사(STAI),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K-AQ), SNS중독 경향성 척도와 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하위 요인과 총합 점수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염된 불안과 분노가 개인의 불안 상태 및 공격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공격성 질문지의 하위요인과 상관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적대감”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적대감의 문항을 살펴보았을 때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혹은 논쟁하고 싶거나, 자신의 분노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을 느끼기보다는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때때로 있다.’, ‘나는 때로 사람들이 내가 모르게 나를 비웃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와 같이 인지적인 변화와 관련이 더 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정서전염이 인지 및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Barsade, Coutifaris & Pillemer, 2018). 더불어 SNS중독 경향성과의 상관관계는 소셜 미디어에 몰입할수록, 사용량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할수록,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수록 소셜 미디어 정서전염의 취약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자존감이 높을수록 정서전염에 취약하다는 기존 선행 연구(김미애, 이지연, 2015; Doherty, 1997)들과 달리 이 연구에는 자존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존감이 낮을수록 소셜 미디어에 과몰입하게 된다는 선행연구(강선경, 이석환, 2021)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면 장면에서 발생하는 기존의 정서전염과 온라인 장면에서 발생하는 소셜 미디어 정서전염이 발생 장소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적절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더불어 소셜 미디어 정서전염과 기존의 대면 장면에서의 정서전염이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자존감과 소셜 미디어 정서전염과의 관계에 대한 정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SAACS의 신뢰도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내적 합치도 나타났으며, 검사-재검사 결과 역시 적절한 수준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SAACS가 일관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염된 불안과 분노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임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자면, SAACS는 12개의 하위요인과 48문항으로 구성된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의도적으로 분노의 문항을 제거하고, 불안의 개념을 담고 있는 않은 정서전염 척도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은 것과 상태 불안 척도 및 공격성 척도와 유의한 수준의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SAACS가 개념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 결과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지금까지 소셜 미디어 정서전염의 전통적인 측정방법이었던 미디어 분석 방법(Wang & Wei, 2020)에서 벗어나 최초로 자기보고 방식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염되는 불안과 분노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더불어 정서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는 변인으로(Becht & Vingerhoets, 2002), 정서의 특징을 반영하여 현재 국내 정서를 표현하는 단어인 ‘협오의 시대’에 맞춰 다양한 영역에서 불안과 분노를 측정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문화적 차이를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개발한 SAACS는 소셜 미디어 정서전염과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현재 국내 정서는 실제 일어나는 범죄에 비해 과도한 범죄 불안을 겪고 있으며(우선희, 2018), ‘이수역 폭행 사건’(방준원, 2019. 07. 30)과 같이 과거 온라인 장면에서만 나타나던 남녀 갈등이 현실에도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20대는 아동기부터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접해온 이른바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 혹은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로 불리는 세대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더욱더 무더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소셜 미디어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은 디지털 원주민과 그렇지 않은 세대 간의 차이가 크게 다르다는 선행연구결과(권예지 등, 2015)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셜 미디어 정서전염과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SAACS는 오늘날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갈등 및 협오 문제

와 관련하여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집단이 영향을 받는 정서전염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에 따른 변화 및 개입에 따른 효과 측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받은 자극으로 인해 사회에 대한 불신, 타인에 대한 불신 등과 같이 심리적 불편감을 호소하는 개인의 문제를 이해하고 개입하는 과정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COVID-19 팬데믹 이후 소셜 미디어의 이용시간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용에 따른 부정적 감정의 변화에 대한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손영준, 허만섭, 2020). 특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높은 불안을 경험할 경우 정보 수집을 위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경향이 증가하였지만(이동훈 등, 2020), 이러한 경향은 오히려 불안을 부추기는 자극에 자주 노출됨으로써 부정적 감정이 심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Bratu, 2020). 이와 같은 현상이 심화될수록 이 연구에서 개발된 SAACS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집합된 정보로 인하여 불안 및 불안감을 느끼는 집단 및 내담자를 상담하기에 앞서 기저선을 제공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 유용한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SAACS는 전반적인 소셜 미디어 정서전염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12가지 다양한 하위요인을 제공함으로써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특정 주제를 감지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그 주제에 대하여 어떠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 및 댓글 환경이 자신을 민감하게 만들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정말 근거 있는 주장인지 또는 그와 관련된 과거 기억 및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함으로써 자기 이

해 및 인지를 재구성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은 조회 수가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지라도 자극적이고, 민감한 주제를 편향적이고 왜곡하여 다루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와 같은 상황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실만을 전달해야 하는 뉴스 및 정보 전달을 표방하는 플랫폼 또한 별반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신동희, 2014).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 이유로는 지금까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전달하는 부정적인 정서와 그에 따른 피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기에 심각성과 개입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기 힘든 상황 때문일 수 있다. 민감하고 자극적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다뤄지는 상황에서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SAACS는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미디어와 관련하여 관리 및 사회적 책무를 점검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와 이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20-30대 청년 초기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다양한 연령과 성별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SAACS가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점수가 있음에도 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일반화를 위해 큰 표본수의 집단을 모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기준화도 같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염된 높은 불안과 분노로 인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상 군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범죄, 세대, 빈부, 정치, 지역, 성별과 관련된 불안과 분노가 오직 소셜 미디어를 통해 느껴지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경험과 현실에서의 정서전염을 통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룹에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염되는 불안과 분노를 통해 개인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부정적 상태를 알아보고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임상 집단과 일반 집단의 반복적인 비교를 통한 검증이 필요할 수 있다.

셋째,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염되는 감정은 여러 감정이 있으며, 이 중 불안과 분노로 인한 것이 아닌 다른 부정적 감정의 전염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 전염이 되는 감정의 종류는 다양하며, 불안과 분노를 제외하고 대표적인 감정으로 우울을 예로 들 수 있다. 우울은 소셜 미디어가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정서로 주목을 받아온 감정으로(Bastiampillai, Allison & Chan, 2013),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우울을 경험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염된 우울을 경험하는 집단 및 내담자에게 SAACS가 정확하게 측정하기에는 어렵지만 SAACS가 소셜 미디어 정서전염의 취약성을 측정한다는 점에 일부분 측정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넷째, 소셜 미디어의 공중 의제 변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전 세계 평균속도보다 더욱 빠른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원태, 차미영, 양해륜, 2011). 따라서 SAACS에서 선별된 범죄, 세대, 빈부, 정치, 지역, 성별 영역이 추후에는 전염을 일으키지 않는 공중 의제가 될 수 있으므로 SAACS의

측정 정확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같은 주제임에도 다른 사회적 합의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별 갈등의 경우 기존에 가부장적인 전통을 유지하는 집단과 가부장적인 전통에 맞서 여성의 권리를 되찾고자 시도하는 움직임과의 갈등으로 설명되었다면(이병량, 김서용, 전영평, 2008), 오늘날에는 생존경쟁, 일자리, 삶의 불안 등과 같이 자신의 성별이 현실에서 받게 되는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갈등으로 설명되고 있다(김기동, 정다빈, 이재묵, 2021; 류연규, 김영미, 2019). 이처럼 같은 주제임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념이 설명하는 현상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SAACS의 측정 정확도 점검에 있어 인식의 변화 또한 점검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SAACS의 문항은 국내 사이트의 게시물 및 댓글을 관찰하여 만들어졌기에 외국인 대상 측정 또는 해외 판으로 타당화하는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점검 사항이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빈부불안과 빈부분노의 경우 개발 당시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항을 개발하고자 했으나, 소셜 미디어에서 나타난 게시물 및 댓글의 정서는 대부분 상대적 빈 계층이 부 계층을 공격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었기에 문항 개발 또한 이러한 속성을 담고 있다. 이는 경제 구조가 현재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입장인 “빈”의 입장에 따라 문항이 다수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추후 상류층과 하류층의 비율이 같고 중류층의 비율이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 형 경제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문항의 중립성에 다시 한 번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같은 개념과 이론을 공유하는 최근에 개발된 소셜 미디어 정서전염 척도(이

찬주 등, 2022)와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지 못한 것에 제한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와 공통된 준거척도인 한국판 정서전염 척도와 Rosenberg 자이존중감 척도와의 상관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불안과 분노를 특정한 SAACS와 포괄적으로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측정하는 소셜 미디어 정서전염 척도와의 총합점수에는 약간의 상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하위요인에 따라 보았을 때에는 긍정정서와는 부적상관, 부정정서와는 정적상관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추후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예측한 결과와 같다면 두 척도 모두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서전염을 측정하는 도구가 될 것임을 확인이 될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두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추후 사용자가 검사 대상 및 상황에 따라 척도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을 제공해 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선경, 이석환 (2021). 청년의 자존감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 19 사회적 고립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6(2), 227-234.
- 강희영 (2020).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복잡성과 정책 과제. 이화젠더법학, 12(2), 45-93.
-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2), 487-501.
- 권예지, 나은영, 박소라, 김은미, 이지영, 고예나 (2015). 한국의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 온라인 콘텐츠 이용, SNS 네트워크, 사회적 관계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9(2), 5-40.

- 권현수, 임홍조 (2020, 4. 2). [영상]세금 50억 원 들인 공중화장실 몰카 점검...적발 건수 '0건'. 머니투데이. Retrieved From,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0118177430246>
- 김경희, 조연하, 배진아 (2020). 인터넷 혐오표현 대응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출경험 사례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 499-510.
- 김감미, 이지은, 김연수, 김희선, 김성진 (2019). 여혐·남혐 갈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2(3), 29-54.
- 김기동, 정다빈, 이재목 (2021). 한국인의 젠더 정체성과 젠더갈등. 한국정치학회보, 55(4), 5-42.
- 김도훈, 이승현, 이창한 (2019). 미디어를 통해 수용된 일반대중의 범죄인식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4), 105-128.
- 김미리, 이선희, 정순돌 (2020). 연령주의가 세대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노인 차별과 미디어 이용시간의 상호작용 효과.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40(6), 1109-1127.
- 김미애, 이지연 (2015). 한국판 정서전염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305-323.
- 김용희, 한창근 (2019). '수저계급' 관련 웹 뉴스 기사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1(3), 55-81.
- 김은진 (2019). 노인들의 SNS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6(4), 188-239.
- 김정식, 김완석 (2007). 이타행동의 유발요인으로서 정서전염: 문화변인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3(2), 55-76.
- 김지주, 권상희 (2020). 사회적 갈등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 연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4(2), 5-43.
- 김차영, 박혜경 (2021). n 번방 사건에 관한 뉴스 노출과 세상에 대한 신념의 관계: 간접외상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3), 237-258.
- 김혜원, 박동숙, 이재원, 정사강, 강혜원, 백지연 (2018). 5 월 19 일, 여성들은 해화역에 어떻게 모였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의 의제화와 조직화 과정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6(4), 85-139.
-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49(1), 179-212.
- 나은영, 차유리 (2012). 인터넷 집단극화를 결정하는 요인들: 공론장 익명성과 네트워크 군중성 및 개인적, 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1), 103-121.
- 류연규, 김영미 (2019). 한국사회 젠더갈등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6(4), 131-160.
- 박노일, 장석환, 정지연 (2018). 미디어 이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19(4), 673-683.
- 박상운 (2014). 왜 SNS 에서 정치 양극화가 지속되는가?: 의사소통 대상, SNS 정보 신뢰도, 타인 신뢰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0(1), 235-252.

- 박영숙 (2019). 현대 심리평가의 이해와 활용. 학지사.
- 방준원 (2019, 7. 30). 검찰, '이수영 폭행' 사건 남녀 당사자 벌금형 약식기소. KBS NEWS. Retrieved From.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52848&ref=A>
- 손영준, 허만섭 (2020). 코로나 19 확산 후 소셜미디어 이용과 무력감, 외로움, 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21(11), 1957-1971.
- 송형국 (2022, 4. 23). [미리보기] 시사기획 창: 혐오 팬데믹. KBS NEWS. Retrieved From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47227>
- 신경아, 최윤형 (2020). 혐로 (嫌老) 사회: 뉴스 댓글에 나타난 노인인식과 공공 PR 의 과제. 광고학연구, 31(6), 93-128.
- 신동희 (2014). 인터넷 포털의 저널리즘적 역할에 관한 고찰: 언론과 포털의 갈등구조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10(1), 169-212.
- 오강섭 (2017).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불안 및 불안장애. 생물정신의학, 24(2), 45-51.
- 오혜민 (2019). 혐오가 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불안: 난민과 여성의 공포 인정 논의를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12(2), 157-191.
- 우선희 (2018). 범죄 피해 불안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유럽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8(7), 66-80.
- 디지털뉴스제작팀. (2021, 2. 28). [엠빅뉴스]5천원 들고 치킨집 앞을 서성이던 형제.. 사장은 단번에 알아챘다. MBC. Retrieved From. https://imnews.imbc.com/original/mbig/6104447_29041.html
- 이동훈, 김예진, 이덕희, 황희훈, 남슬기, 김지운 (2020).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에 대한 일반대중의 두려움과 심리, 사회적 경험이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4), 2119-2156.
- 이병량, 김서용, 전영평 (2008). 한국 사회갈등구조의 진단과 해석: 수준, 원인, 대안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2(4), 49-72.
- 이승모, 홍진이, 하동현 (2019).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인식의 변화와 특성 분석:[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3(4), 145-173.
- 이승훈 (2021). '혐오 시대' 넘어서기. 사회사상과 문화, 24(1), 117-152.
- 이영옥, 김평식 (2019). 범죄피해자의 미디어 이슈와 사회적 인식, 책임성. 한국범죄정보연구, 5(2), 85-104.
- 이원태, 차미영, 양해륜 (2011). 소셜미디어 유력자의 네트워크 특성 - 한국의 트위터 공동체를 중심으로.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48.
- 이유진 (2018, 6. 9). '2차 해화역 시위' 여성 3만명 집결...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806091810001#c2b>
- 이자영, 남숙경, 이미경, 이지희, 이상민 (2009b). Rosenberg 의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수준 타당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173-189.
- 이자영, 남숙경, 최보영, 이지희, 박양민, 이상민 (2009a). 상담일반: 문화차에 의해 발생한 심리검사 문항의 번역오류: Rosenberg 의 자아존중감 척도 8번 문항의 수정을

-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0(3), 1345-1358.
- 이지원, 김규정 (2019). 소셜미디어(Social Media)에서 집단지성에 의한 사이버불링 현상에 관한 다학제적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7(4), 269-283.
- 이종임, 홍주현, 설진아 (2019). 트위터에 나타난 미투 (# Me Too) 운동과 젠더 갈등이슈 분석: 네트워크 분석과 의미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4(2), 99-146.
- 이찬주, 박주은, 신하영, 최상민, 서동기, 김재금 (2022). 소셜미디어 정서전염척도(SECS)의 개발 및 타당화: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 22(7), 583-598.
- 이하나 (2020).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화섭 (2022, 8. 7). 이문희 인권 강사“혐오 만연한 시대, 가장 먼저 짓밟히는 것 인권”. 매일신문. Retrieved From,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80116545068699>
- 이흥표, 최윤경, 이재호, 이흥석 (2016). 세월호 뉴스 노출을 통한 간접 외상의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3), 411-430.
- 임연희 (2020). 빅데이터 공통기반 ‘해안’을 활용한 소셜분석: 대전 ‘트랩’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1(2), 3-21.
- 장민지 (2016). 디지털 네이티브 여/성주체 (Digital Native Fe/male Subject)의 운동 전략: 메갈리아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1(3), 219-255.
- 정사강, 이재원, 박동숙 (2021). 나에게 헤화역시위는 무엇이었나?: 2030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7, 116-148.
- 정사강, 홍지아 (2019). 국가 페미니즘, 여성가족부, 여성혐오. 미디어, 젠더 & 문화, 34(1), 209-253.
- 정소영, 김종남 (2014).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147-166.
- 정순돌, 이수영, 박민선, 신보람, 김지연 (2021). 연령집단간 세대갈등의 영역과 원인-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3(3), 229-253.
- 조정열 (2021). 참여의 저주: SNS 발전은 사회적 갈등을 확산시키는가?. 비즈니스융합연구, 6(1), 117-123.
- 차란희, 노안영 (2020).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3), 1325-1345.
- 천혜정 (2019). 정치적 소비주의, 소비자불매행동 그리고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 이용 동기 및 정치사회자본을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50(2), 55-88.
- 최민재 (2009). 소셜 미디어의 확산과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수용자 인식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5-31.
- 특별취재팀 (2018, 8. 4). “한남 69명 살해” “女男 경찰 9대1”...광화문 피켓 미리 보니. 조선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4/2018080400744.html
- 하현주, 권석만 (2019). 정서전염과 자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과 자기몰입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4), 829-852.

-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 (1993). Spielberger 상태-특성 불안 검사의 표준화.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3(1), 505-512.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
- Bagozzi, R. P., &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Barsade, S. G., Coutifaris, C. G., & Pillemer, J. (2018). Emotional contagion in organizational life.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38, 137-151.
- Bastiampillai, T., Allison, S., & Chan, S. (2013). Is depression contagious? The importance of social networks and the implications of contagion theory.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7(4), 299-303.
- Becht, M. C., & Vingerhoets, A. J. (2002). Crying and mood change: A cross-cultural study. *Cognition & Emotion*, 16(1), 87-101.
- Bratu, S. (2020). The fake news sociology of COVID-19 pandemic fear: Dangerously inaccurate beliefs, emotional contagion, and conspiracy ideation. *Linguistic and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19), 128-134.
- Broadbent, D. E., Cooper, P. F., FitzGerald, P., & Parkes, K. R. (1982). The cognitive failures questionnaire (CFQ) and its correlate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1), 1-16.
- Brown, N. J. L., Sokal, A. D., & Friedman, H. L. (2013). The complex dynamics of wishful thinking: The critical positivity ratio. *American Psychologist*, 68(9), 801-813.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
- Cohn, M. A., Mehl, M. R., & Pennebaker, J. W. (2004). Linguistic markers of psychological change surrounding September 11, 2001. *Psychological science*, 15(10), 687-693.
- Coplan, A. (2011). Will the real empathy please stand up? A case for a narrow conceptualization. *The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49, 40-65.
- Dubey, A. D. (2020). Twitter Sentiment Analysis during COVID-19 Outbreak. Available at SSRN 3572023.
- Doherty, R. W. (1997). The emotional contagion scale: A measure of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21(2), 131-154.
- Doherty, R. W., Orimoto, L., Singelis, T. M., Hatfield, E., & Hebb, J. (1995). Emotional contagion: Gender and occupational differenc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3), 355-371.
- Fan, R., Xu, K., & Zhao, J. (2018). An agent-based model for emotion contagion and competition in online social media. *Physica a: statistical mechanics and its applications*, 495, 245-259.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Furnham, A. (2003). Belief in a just world:

- Research progress over the past decad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5), 795-817.
- Garcia, D., & Rimé, B. (2019). Collective emotions and social resilience in the digital traces after a terrorist attack. *Psychological science*, 30(4), 617-628.
- Gilboa, S., Shirom, A., Fried, Y., & Cooper, C. (2008). A meta analysis of work demand stressors and job performance: examining main and moderating effects. *Personnel psychology*, 61(2), 227-271.
- Gilroy, P. J., Carroll, L., & Murra, J. (2002). A preliminary survey of counseling psychologists' personal experiences with depression and treatment.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3(4), 402.
- Goldenberg, A., & Gross, J. J. (2020). Digital emotion contag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24(4), 316-328.
- Hatfield, E., Cacioppo, J. T., & Rapson, R. L. (1993). Emotional contag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 96-100.
- Hill, A. L., Rand, D. G., Nowak, M. A., & Christakis, N. A. (2010). Emotions as infectious diseases in a large social network: the SISa model.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277(1701), 3827-3835.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Stein, L., Jenkins, H., Ford, S., Green, J., Booth, P., Busse, K., ... & Ross, S. (2014). Spreadable media: Creating value and meaning in a networked culture. *cinema Journal*, 53(3), 152-177.
- Joiner, T. E. (1994). Contagious depression: Existence, specificity to depressed symptoms, and the role of reassurance see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2), 287.
- Kelly, J. R., Iannone, N. E., & McCarty, M. K. (2016). Emotional contagion of anger is automatic: An evolutionary explan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5(1), 182-191.
- Kramer, A. D., Guillory, J. E., & Hancock, J. T. (2014). Experimental evidence of massive-scale emotional contagion through social network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1(24), 8788-8790.
-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 Lerner, M. J., & Miller, D. T. (1978). Just world research and the attribution process: Looking back and ahead. *Psychological bulletin*, 85(5), 1030.
- Lieberman, A., & Schroeder, J. (2020). Two social lives: How differences between online and offline interaction influence social outcome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31, 16-21.
- Lucas, T., Alexander, S., Firestone, I., & LeBreton, J. M. (2007).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meas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1), 71-82.
- Postmes, T., Spears, R., & Lea, M. (1998). Breaching or building social boundaries? SIDE-effects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 Communication research*, 25(6), 689-715.
- Prantl, D., & Prantl, M. (2018). Website traffic measurement and rankings: competitive intelligence tools exam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Web Information Systems*.
- Ritter, C., Benson, D. E., & Synder, C. (1990). Belief in a just world and depression. *Sociological Perspectives*, 33(2), 235-252.
- Rosenberg, M.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 Shaw, P. V., Wilson, G. A., & Antony, M. M. (2021). Examination of emotional contagion and social anxiety using novel video stimuli. *Anxiety, Stress, & Coping*, 34(2), 215-227.
- Shin, I., & Hampton, K. N. (2021). New media use and the belief in a just world: awareness of life events and the perception of fairness for self and injustice for other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17.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teinert, S. (2021). Corona and value change. The role of social media and emotional contagion. *Eth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1-10.
- Suksida, T., & Santiworarak, L. (2017). A study of website content in webometrics ranking of world university by using similar web tool. *In 2017 IEE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gnal and Image Processing (ICSIP)*, 480-483.
- Wanf, X., Li, W., & Du, J. (2010). The development research of the emotional contagion theory. *Software Engineering and Service Sciences*, 628-632.
- Wang, J., & Wei, L. (2020). Fear and hope, bitter and sweet: Emotion sharing of cancer community on twitter. *Social Media + Society*, 6(1), 2056305119897319.
- Yang, E. J., & Shim, E. J. (2022). Does belief in a just world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stress and suicide risk in university student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11.

논문 투고일 : 2022. 08. 15
1 차 심사일 : 2022. 08. 18
2 차 심사일 : 2022. 10. 10
3 차 심사일 : 2022. 10. 19
게재 확정일 : 2022. 11. 0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al media Anxiety and Anger Contagion Scale

Taeho Moon

Wonyoung Song

Department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Kony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nd validate the social media anxiety and anger scale(SAACS), which measures emotions, especially anxiety and anger that can be contagioned to individuals, through posts and comments on social conflicts in social media. A literature search was conducted on social conflicts in social media, 12 factors(anxiety and anger about gender, crime, generation, wealth gap, politics, region) were selected. Then questions were developed after looking into previous literature and reviewing community posts and comments, and 105 preliminary questions were selected. Following the results of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people aged 20 to 39 age group, SAACS was revised to 12 factors(anxiety and anger about gender, crime, generation, wealth gap, politics, and region) and 48 questions. When verifying the validity, the SAACS had a significant level of correlation with the SNS addiction tendency scale, Rosenberg self-esteem scale, Korean aggression questionnaire(K-AQ), and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X). SAACS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Korean emotional contagion scale(K-ECS).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Social media, Social Conflict, Emotion contagion, Anxiety, Anger, scale validation

부 록 1. 소셜 미디어 불안과 분노 전염 척도

※ 소셜 미디어란 TV, 인터넷 기사, 커뮤니티 사이트, 유튜브, SNS 등의 게시 글 및 댓글 등 타인의 의견, 생각, 경험, 관점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온라인 수단을 의미합니다.

1.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무서워졌다.(1)
2.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내 세대가 가지는 사회적 위치가 더욱 낮아 질까봐 두려워졌다.(2)
3.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난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꼈다.(3)
4.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특정 정당에 대한 무능함에 경제가 더욱 안 좋아 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불안감을 느꼈다.(4)
5.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특정 출신지역 사람에게 피해를 당할까봐 불안해졌다.(5)
6.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나도 성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해졌다.(6)
7.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범죄자에 대해 더 강한 분노감을 느끼게 되었다.(7)
8.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내가 손해 보는 이유가 특정세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8)
9.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내가 속해 있는 사회적 계층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분노감을 느끼게 되었다.(9)
10.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특정 정당에 대해 분노감을 느끼게 되었다.(10)
11.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어떤 지역사람들은 차별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11)
12.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나의 성별이 차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난다.(12)
13.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타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1)
14.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내 세대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2)
15.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미래의 내 자식도 빈곤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두려움을 느꼈다.(3)
16.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특정 정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4)
17.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특정 지역출신의 사람이 속해있는 집단을 멀리하게 되었다.(5)
18.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나의 성별이 처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 같다 두려워졌다.(6)
19.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범죄자로 의심받는 사람에게도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다.(7)
20.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특정 세대가 받은 혜택에 대해 분노감을 가지게 되었다.(8)
21.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부자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는 사실에 분노감을 느끼게 되었다.(9)
22.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이중적인 정치인의 행동에 분노감을 느끼게 되었다.(10)
23.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특정 지역 사람들만 보면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고 싶어졌다.(11)
24.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나의 성별이 받는 사회적 대우에 분노감을 느끼게 되었다.(12)
25.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혼자 있을 때 홈서비스를 부르기 무서워졌다.(1)
26.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내가 속한 세대가 더 많은 손해를 볼까봐 두려워졌다.(2)
27.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부자들이 만든 경제구조에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해졌다.(3)

28.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내가 반대하는 정당의 지지자들이 많아질 것 같아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4)
29.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특정 지역 출신을 신뢰하기 힘들어졌다.(5)
30.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내 성별이 처한 상황이 더 이상 개선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6)
31.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범죄자의 가족한테까지 분노감을 느끼게 되었다.(7)
32.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특정 세대 때문에 내 미래가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분노감을 느끼게 되었다.(8)
33.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한 내 인생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9)
34.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무능한 정치인에 대해서 분노감을 느끼게 되었다.(10)
35.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내가 받는 지역 차별적 대우에 분노감을 느끼게 되었다.(11)
36.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성차별을 받는 상황에 자주 욱하게 되었다.(12)
37.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범죄에 대한 불안으로 이웃과 친해지기 힘들어 졌다.(1)
38.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내 세대의 처우가 이대로 유지되거나 더 하락할 것 같아 불안해졌다.(2)
39.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미래에는 현재 나의 경제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 불안함을 느꼈다.(3)
40.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특정 정당이 권력을 잡아 나의 자유가 침해될까봐 두려워졌다.(4)
41.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특정 지역 사람들을 보면 거부감이 먼저 든다.(5)
42.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이성과 무엇인가를 함께 할 때면 쉽게 피곤해 졌다.(6)
43.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범죄자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목소리가 커지거나 흥분하게 된다.(7)
44.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특정 세대들이 무엇을 하든 전부 안 좋게 보인다.(8)
45. 소셜 미디어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상류층을 보면 화가 난다.(9)
46.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는 게시 글을 볼 때 마다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10)
47.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지금까지 내가 받아온 지역 차별적 시선에 복수하고 싶어졌다.(11)
48.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 만약 기회가 된다면 성차별을 받은 것에 대해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12)

주. 각 문항 끝의 숫자는 소척도를 의미함: (1) 범죄불안, (2) 세대불안, (3) 빈부불안, (4) 정치불안, (5) 지역불안, (6) 성별불안, (7) 범죄분노, (8) 세대분노, (9) 빈부분노, (10) 정치분노, (11) 지역분노, (12) 성별분노